



Vogue Girl Korea
April 2007

APRIL 2007
www.voguegirl.com

ART, BOOK & PICNIC
크리에이티브 피플 10인의 아트 위시 리스트
애서가 8인의 심미안과 강성 필터를 통과한 책
피크닉 애호가 8인의 피크닉 패킷

SPRING FASHION
AtoZ

퓨처리즘, 각 시크, 킬 힐, 슈퍼 빅 백...
올 봄 패션 키워드 AtoZ

3 BEAUTY ISSUES
네온 파스텔, 미네랄! 3대 스프링 컬러
부위에서 찾는 오가닉 뷰티 케어법
부분 비만 탈출! 부위별 다이어트 플랜

책 속 부록 세계 스트리트 패션과 주도하며 트렌드를 창조하는 할리우드 스타 10명의 할리우드 및 걸,
50가지 베스트 스포팅 룩, 그리고 98가지 패션 아이템

LESBIE IN LA

나상실과 안나 조의 사이, LA 걸 한 예술가와



JEFF BARK

제프 바크 JEFF BARK

네덜란드 회화를 담은 사진 어슴푸레한 집안 풍경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한 반들거리는 누드, 공들여 정돈한 배경과 부드럽게 버려진 빛과 그림자... 중세 네덜란드 화가들의 그림처럼 보이지만, 이 작품은

영국의 사진작가 제프 바크의 사진이다. 사진과 그림의 관계, 또는 그 사이의 경계를 다시 사유해 하는 이 작품들을 위해 그는 공들여 모델을 선택하고 복잡한 방법으로 모던한 집안 세트의 디테일을 매만지며 사소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구도를 정한다. 그가 사진을 위해 세트를 만드는 시간은

화가가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시간과 맞먹는다. 그리고 노출 시간을 최대한 길게 해서 촬영한 그의 사진들은 '순간'의 예술이라기보다 시간을 아우르는 작업으로 완성된다. 부드럽고 탁한 그란과 브라운 컬러에 더러운 도시의 햇빛이 비치고, 드리워진 커튼이 아스팔트 정글의 소음을 걸러내는 풍경... 한편, 1950년대 미국 성인 만화의 미학을 발산하기도 하는 그의 사진은 섬세하면서도 우화적이다. 지난 20여 년간 〈보그〉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와 비토리아 시크릿의 광고 사진을 찍어온 제프 바크는 지금은 패션 산업의 소란에서 벗어나 인물 사진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2006년 11월 런던의 마이클 호펜 갤러리에서 '어밴던(Abandon)' 시리즈를 전시한 그는 평단과 관객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작품은 'Untitled (Plug)' 2006.

사진 제프: 마이클 호펜 갤러리(www.michaelhoppengallery.com)



BEN WHISHAW

벤 위쇼 BEN WHISHAW

장 바티스트 그르누이가 되다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얻기 위한 맹목적인 집착으로 서슴지 않고 살인을 저질렀던 그르누이의 이야기, 파프리카 퀴스킨트의 소설 〈향수〉가 출간된 지 20년 만에 영화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작의 열성 팬들은 그르누이 역을 연기할 배우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았으며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비천하고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사나이 그르누이를 연기할 배우를 떠올리는 것은 간단치 않은 일. 올란드 블룸이 그르누이 역할을 자청하기도 했다는 소문 속에 소설 〈향수〉의 마니아들은 수많은 배우들을 그들만의 가상의 스크린 속으로 불러냈지만, 톰 위크배어 감독은 그들의 허를 찔렀다. 영화 〈향수〉의 캐스팅 리스트에 오른 장 마르 몸과 매우 준수한 외모를 가진 벤 위쇼라는 배우는 그들의 데이터엔 없는 인물이었다. 물론, 관객들의 선입견을 거세하고, 그르누이 역할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전혀 새로운 인물을 발탁한 감독의 모험은 제작자들의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무려 6천만 달러짜리 영화에 낯선 배우를 기용하는 것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었다. 게다가 준수한 벤 위쇼에게서 섬뜩한 혐오를

who is who

중세 시대의 회화 같은 이미지를 포착한 영국의 포토그래퍼, 〈향수〉의 장 바티스트 그르누이를 연기한 준수한 청년, 지난 한 세기를 관통해 사랑받았지만, 우리에게 너무 늦게 소개된 만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 에디터: 이경아



EDWARD GOREY

불러일으키는 그르누이의 외모를 떠올리기 힘들다는 팬들의 미스 캐스팅 논란 또한 뜨거웠다. 그러나 독일에서 〈향수〉가 개봉한 후 관객들은 벤 위쇼에게 박수를 보냈다. 감독의 움직임에 따라 미세하게 변해가는 표정, 그의 익숙하지 않은 개성은 관객들에게 발견의 기쁨을 안겨주었다. 런던의 올드 빅(Old Vic) 극장에서 〈향수〉를 보러 온 톰 위크배어 감독의 눈에 발탁될 때까지 소설 〈향수〉를 읽어본 적이 없었던 그는 시나리오를 읽고 그르누이에게 빠져들었다. 직접 향수 제조법을 배우고

동물들이 밤새 맡는 방법을 관찰하는 등 그르누이가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던 그는 결국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떨쳐냈다. 그는 〈가디언〉이 선정한 2007년 가장 주목해야 할 배우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고, 토드 헤인즈 감독의 신작 〈나는 거기 없다〉에 밥 딜런 역으로 캐스팅되기도 했다. 〈향수〉는 3월 22일 국내 개봉 예정이다.

에드워드 고리 EDWARD GOREY

중독성 가득한 기괴한 유머 사람들은 톰 버튼의 영화에서 종종 에드워드 고리의 흔적을 발견한다. 매우 웃기지만 끔찍한, 지독한 유머와 잔인한 묘사를 오가는 에드워드 고리의 작품은 예컨대 이렇다. 그의 고전으로 불리는 〈The Doubtful Guest〉에는 긴 목도리에 테니스화를 신은 이상한 생물이 한적한 저택에 불쑥 나타나 원래부터 가족이었던 듯 행동한다. 벽난로 굴뚝 속을 엿보고 책장을 찢고 밤마다 집안을 배회하는 그는 17년이 지난 지금도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1963년작 〈명하고 산산조각난 꼬마들(Gashlycrumb Tinies)〉은 A부터 Z까지 알파벳 순서대로 아이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과정을 그린다. A는 계단에서 떨어진 에이미, N은 지루함에 죽어간 네빌, T는 폭탄으로 산산조각난 타이러스, V는 기차에 깔려 죽은 빅터, Z는 잔을 너무 많이 마신 질라... 오묘할지 아이들이 모여 있는 표지를 넘기면 한 명씩 죽어간 아이들을 묘사한 그림이 차례로 펼쳐진다. 이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그러나, 완벽하게 어둠지만은 않아서 현실을 뒤엎어 조롱하는 그의 어두운 유머가 사람들을 중독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1925년 태어나 2000년 심장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1백 권이 넘는 책을 쓰고 60권이 넘는 책에 삽화를 그렸으며, 자신의 책을 원작으로 한 연극의 연출이나 무대 미술을 맡기도 했던 정열적인 사람이었다. 장대감이 큰 키에 수염을 기르고 양쪽 귀에 귀고리를 하고 손가락마다 반지를 끼고 다녔던 그는, 마치 자신의 책에서 튀어나온 인물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친구였던 고담 북마크 사장 안드레아스 브라운은 그가 상냥하고 부드럽으며 명랑하고 웃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증언했다. 사망한 후 국내에 조금씩 소개된 에드워드 고리는 최근 그의 작품 번역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중의 관심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올해 초에는 출판사 미메시스에서 〈비밀 다락방〉, 〈독이든 사랑〉, 〈미치광이 사촌들〉, 〈오래 전의 방문〉 등 에드워드 고리의 최신 시리즈가 발간되기도 했다. 전립선 암과 당뇨병, 불면증과 싸우면서도 의욕적으로 활동했던 그는 1999년 '잘못된 밀레니엄에 대한 우울한 사색'이라는 부제가 붙은 크리스마스 이야기 〈The Headless Bust〉를 끝으로 팬들 곁을 떠났다. 물론 그의 아들도 우울한 유머는 지금까지처럼 먼 미래까지도 '현재적' 일 테지만 말이다. ㉠